

사회와 인간, 세계를 잇는 책읽기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소설

김학천

전국대 교수 · 신문방송학

일생을 거기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전문분야, 전공분야를 정할 때에도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포괄적인 느낌과 지레짐작으로 결정하기 일쑤이다. 학문도 결국은 직업화한 전공분야라고 볼 때 내가 매스컴학을 전공분야로 결정하기까지 겪은 방향 역시 남다르지 않다.

어느 원로시인은 자기를 키운 것의 '팔할은 바람'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성장하고 의식을 여물게 하는 과정에서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뇌와 외로움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대학의 경우라도 19살 나이에 자기가 택하는 학문분야의 깊이와 의미를 알고 결정하는 경우란 어렵고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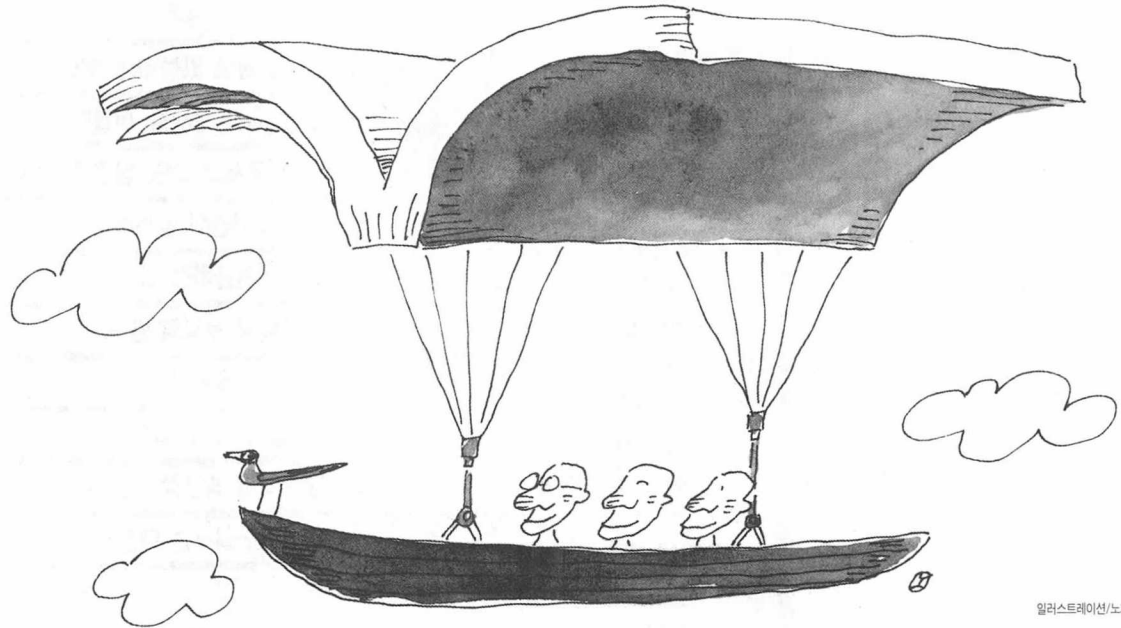
서구사회에서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여러 해를 지켜봐주고 졸업에 임해서 학생이 지닌 특성에 맞추어 진출 분야를 조언해준다.

일찍이 가치를 부여하고, 소모적인 방향을 아끼고, 긍지를 찾는다는 점에서 서구적인 직업관은 높은 경제성과 안정성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부분 부모의 감(感)을 참고하고 본인의 대략적인 취향과 세대의 흐름에 따라 일생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 이같은 진로 선택 과정은 엄청난 교육투자에 비하면 얻어들이는 결실이 작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내 학문의 원천은 방향

그러나 비록 그렇게 자신의 삶의 분야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성실도와 세월의 길이에 따라 그것은 사회를 지탱하고 개인에게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소중한 영역이 되기도 하고 인식과 무계에 따라 천직(天職)이 되기도 한다. 물론 든든한 직업관이 토대를 이룰 때 그러하다.

이제는 직업이 된 '나의 학문'도 그 원천은 방향이다. 의식의 근거가 있을 리 없는 시기에 나는 대학 독일어과에 들어갔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발목을 쥐는 요소가 있었다. '중세나 고대 독일어의 문법적 변화'를 배우면서 이 내용을 내가 살아가면서 언제 다시 읽고, 읽히고, 써먹을 것인가 하는 지극히 통속적인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일러스트레이션/노희성

그런 떨떠름한 의문들은 그 분야의 순수학문적 전진을 멈칫하게 했고, 그 대신 50년대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전후 희곡'들에 흥미를 갖게 했다.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로 현실을 날카롭게 고발하고 인간의 양심을 탐구한 전후희곡들은 문장 속에 깃든 해학과 독특한 언어의 맛도 느끼게 해 나는

커뮤니케이션이란 결국 듣는 이, 보는 이의 태도를 바꿀 만큼 설득력을 갖는 방법을 규명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한 작가가 평생을 기울인 문예를 특히, 유주현과 이문구의 창작물은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의 전범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순식간에 작품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딱딱한 의무에서 슬쩍 피해간, 흥미를 겸한 '독서'는 이후 알게 모르게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나갔다.

이 시기에 내가 읽은 희곡들은 막스 프뤼쉬, 프리드리히 뒤렌마트, 볼프강 보르헤르트, 베르톨트 브레히트,

아서 밀러, 테니시 윌리엄즈 등 쟁쟁한 작가들의 작품이었다.

〈안도라〉〈고장〉〈문밖에서〉〈만리장성〉〈세일즈맨의 죽음〉〈유리동물원〉 등 이들의 작품을 읽고 나니 작품의 완성 단계인 공연을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불일 듯 일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이들 작품처럼 끈끈하고 집요했다.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 이들 작품을 학교 무대와 직업극단 무대에 올려 놓으면서 나는 온몸과 기술을 다 동원하여 '전달' 하는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는 '미디어'의 의미에 눈뜨기 시작했다.

오늘날은 매스미디어의 실재와 학문이 모두 보편화했지만 60년대 초반 해도 그것은 낯설고 특이한 이론체계였다. TV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시로서는 아직 첨단 미디어인 라디오 방송국에 직장을 정했다. 방송국에 들어가서는 일반문예물을 능가하는 문학성을 지닌 라디오 드라마를 수집·번역·분석하고 직접 연출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매스미디어가 대중문화 또는 대중의 보편적 인식과 고급문화를 연결시켜주는 거창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실제적인 이해를 갖기 시작했다.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내 안에 가득 자리하기 시작했다. 2년쯤 되는 기간을 독일에서 보내며 그곳 방송국 사람들과

함께 작품을 쓰고 연출해볼 기회도 가졌다.

그러나 70년대 한국언론의 소용돌이는 그렇게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서 써먹어 보지도 못하게 했고, 나는 직장을 떠났다. 혼자 하는 공부 외에는 전혀 할 일이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이미 나이는 40을 넘기고 있었다.

다행히 독일에서 싸잡어지고 온 유럽의 언론학, 특히 방송학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 경향을 부분적으로나마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유주현과 이문구의 소설

결국 나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초보적인 이론부터 다져나가며 공부한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감동적 실제에 빠져들어 본 뒤에 이론을 더듬는 식으로 공부를 거꾸로 한 셈이다.

시대와 인간의 내면을 다룬 희곡들이 내 학문의 발판을 만들어 준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희곡과 교과서만이 내 공부로 도운 것은 아니다. 방송현장과 때늦은 학업의 과정에서 역시 흥미 위주로 접했지만 결과적으로 내 학문에 큰 영향을 준 책들이 있다.

작고한 유주현의 역사소설과 이문구의 창작물들이다. 유주현의 역사소설은 우리말의 유려함과 장단이 한껏 살아 있는 문장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특히 병자호란을 다룬 〈통곡〉은 라디오를 통해 읽힌 결과,

출판 영업자,
서점경영자의
필독서!

서점경영 이렇게 승부한



노세 마사시 지음/장경룡 옮김
/A5신/189쪽/6,500원

이 책은 현재 일본서점(출판유통)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통신판매의 발달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혁기에 있는 지금, 서점도 시대에 발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출판·서점업계 현실과 비슷한 일본의 서점계 분석을 통해 우리 출판계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점업계가 변하고 있다. / 서점·출판사·도매점(총판)-각 업계의 현재 상황 / 서점 개업의 방법, 경영 방법, / 독자의 요구를 알기 위한 정보원 / 서점 프랜차이즈와 헌 책 판매점 / 서점의 판매 시스템과 생산성



살려 쓸 우리말 4500

정우기 지음/A5/
320쪽/6,500원

우리말의 어휘력을 키워주는 우리말 사전. 사전에 있는 낱말들 가운데 순수한 우리말과 북한말을 가려 뽑아 체계있게 정리한 것이다.

글힘 돌음

정우기/A5신/258쪽
/6,000원

알기 쉬운 문제풀이식 문장력 기르기. 이 책은 여러 예문을 읽으면서 글을 보는 눈이 열리고, 글쓰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글힘을 길러주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진리

장경철 지음/A5신/
183쪽/4,500원

아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기독교 신앙의 첫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독교 신앙의 기본진리를 서술한 책이다.

직원 모집

저희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 출판의 세계화를 선도할 유능한 분을 모집합니다.

- 편집장(영문해석,영작 능력 필수) : 1명
- 출판영업 경리 : 1명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6월 15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

100-161 서울시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661
출판부 T.267-0161 ~ 4 F.267-0165. 출판유통사업부 T.325-7971



저 유명한 인조의 남한산성 항복장면은 작가 유주현씨와 출연자 그리고 연출자까지도 모두 올린 우리말 구성과 장단의 극치를 보였다.

이문구의 소설은 유머러스한 고발과 섬뜩할 정도로 예리한 사회성을 함께 담고 있다. 유주현의 표현이 반듯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말이라면 이문구는 현장에서 주위 담은 있는 그대로의 말이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무엇인가. 결국은 듣는 이, 보는 이의 태도를 바꿀 만큼 설득력을 갖는 방법을 규명하는 일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두 작가의 작품은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의 전범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작품은 훗날 내가 학생들에게 매스컴학에서 전달방법, 설득방법, 통칭 저널리즘을 강의하는데 활용되기도 했다. 특히 이문구의 <우리동네>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젊은 시기에 내게 감명을 준 희곡들은 내 글쓰기 방식을 '구어체'로 굳혀 놓았지만 그 후의 소설들은 연구에 필요한 '논문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키워 주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흥미를 가지고 읽은 전공 외의 작품들이 내 본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를 적어 보았다. 학문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그 분야의 쫓대가 되는 책들이 물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책읽기'의 소재라기보다는 일종의 직업용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세워 소개할 만한 일반성은 적다는 뜻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위에 소개한 희곡과 소설들은 인간의 내면과 사회를 비판적으로 읽게 하는 내용과 형식을 지닌다. 특히 유럽의 전후 문예물과 매스컴의 특징은 비판을 이론화하고 대중화한 점으로 알려져 있다.

매스컴의 핵심적 개념은 대중문화의 소비적 즐거움이나 매스미디어를 소유한 쪽의 의도를 조작적으로 공개하는 수단이 아니라, 잡다한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그 의견표시 기능을 부추겨주고, 그리고 왜곡된 현실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끈질긴 비판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발언,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는 물론 오랫동안 분석하고 구성 해놓은 그 방면의 이론에도 기반을 두지만, 일반성과 어느 정도의 대중성까지 가미해서 내놓은 생산물이자 비판과 자기성찰을 담은 문예물, 즉 전후의 희곡들의 영향력도 빼놓을 수 없다.

문예물도 효과적인 매스미디어

나치 이후 극악한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주름잡는 기세는 줄었지만 편익과 자극, 그리고 경제적 부를 위한 왜곡된 설득은 다시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다. 다만 이를 제빨리 합리화하고 보편화시킬 수 있는 나라와, 돌출하는 불합리를 지속적으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집어넣어 힘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구분될 뿐이다.

이것들은 모두 해당지역의 삶의 모습이 되는데, 여론의 소용돌이에 집어넣는다는 뜻은 매스컴의 제한된 뜻으로 볼 때는 미디어들이 환경감시를 제대로 해낸다는 뜻이고,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민주주의가 활성화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에서 볼 때도 영향력이 큰 매스미디어가 독자적으로 원만한 사회, 유익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를테면 텔레비전은 아무리 영향력이 크다 하더라도 자기의 결점과 역기능을 조절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옆에서 인쇄매체가 이를 도울 수 있는데 그 경우도 사람들이 어느 만큼은 '책읽기'의 이점을 이해하고 여유를 갖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는 내용에 대한 편만한 접근 의욕만 키워 놓았다. 그럴수록 더 안 읽고 쉬운 프로그램에만 매달리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지금은 이런 불균형을 분석하고 제시하는 일도 매스컴학의 영역 중의 하나가 되었다.

사람들은 어찌다보니 한 작가가 평생을 기울인 문예물이 사회와 인간, 그리고 내면 세계를 잇는 가장 적극적인 매스미디어란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다. ❖